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편입생

Transfers

7.5-7.23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인문극장 2022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까지 매년 다른 주제로 진행해 왔다. 2022년에는 ‘공정’을 주제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공정 Fairness

신은, 혹은 자연은 공정하지 않다.

만물은 다르게 생겼고 다른 위치를 갖는다. 고르고 균일할 것 같은 원자 상태에서조차 에너지의 상태가 다르다. 원자를 벗어나 단위가 커질수록 다른 점이 늘어나고 차이는 더 벌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독특하게 생겼다는 것이 이치인 셈이다. 그 생김새에 따라 쓰임도 다르고 역할도 따로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와 기본 정신은 ‘법 앞에 평등’이고 그것은 ‘공정’을 기초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가 다른 형태와 능력을 지녔지만, 그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평등한 인격체라는 것에는 모순이 없는가? 모든 것이 똑같은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두 곳의 온도가 같다면 둘 사이에 열은 흐르지 않는다. 두 곳의 농도가 같다면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한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차이와 불균형은 긴장을 낳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움직인다. 이 세계가 에너지와 활기차게 움직이면서도 ‘공정’을 구현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공정’에 대한 강렬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이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세대, 성별, 인종 등 근본적인 차이를 어떻게 ‘공정’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움직임을 어떻게 미래를 향한 힘으로 다듬을 수 있을까?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에서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강연

연강홀

4.4	‘공정’이란 무엇인가?	최정규
4.11	대한민국 능력주의의 뿌리	김호
4.18	공정의 역습-우리 시대 청년들의 ‘공정’	천관울
4.25	공정과 불평등	송지우
5.9	공정함을 원하는 뇌, 그리고 행동	김학진
5.16	공정과 성차, 그리고 과학	임소연
5.23	공정, 미래 조직의 핵심 가치	김정희원
5.30	비례적인 권리와 반비례적인 사랑	김원영

전시

두산갤러리

Skyline Forms On Earthline

4.20-5.25

작가 김민정 문서진 최태윤 황예지

공연

Space111

당선자 없음

5.17-5.29

작·드라마터그 이양구
연출 이연주

출연 김상보 박수진 신강수 이윤재
이주영 황은후

웰킨

6.7-6.25

작 루시 커크우드(Lucy Kirkwood)
번역 김수아
연출 진해정

출연 고윤희 김별 김정아 라소영 민대식 백종승
부진서 송영주 송인성 안민영 이선주 이세영
이정미 이하영 하지은

편입생

7.5-7.23

작 루시 서버(Lucy Thurber)
번역 한원희

연출 윤혜숙
출연 공상아 김하람 이지현 조의진 최호영

작

루시 서버(Lucy Thurber)

연극

〈Where We're Born〉〈Ashville〉〈Killers & Other Family〉

〈Stay〉〈Bottom of the World〉〈Monstrosity〉〈Scarcity〉

〈The Locus〉〈Transfers〉 외

해외 리뷰

“교육 불평등을 섬세한 시선으로 주목한 작품” 씨어트리어스

Sensitively spotlights education inequality

-Theatrius

“미국 사회의 계층, 특권, 기회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작가의 관점이 폭넓은 인물을 통해 드러난다.” SF 이그재미너

Thurber's gift for examining issues of social class, privilege and opportunity in America resonates through her well-rounded characters, so lovingly portrayed here

-San Francisco Examiner

“능력주의라는 기회의 불공정한 분배에 관한 가슴 아픈 폭로” 씨어터 매니아

Heartbreakingly expose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opportunity that we tell ourselves is based on merit

-Theater Mania

“도발적” 뉴욕 스테이지 리뷰

Provocative

-New York Stage Review

“교육과 교육체계를 둘러싼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 씨어터 피자즈

It's about education – who gets it, who doesn't and the inequality surrounding the system

-Theater Pizzazz



연출

윤혜숙

래빗홀씨어터 대표

연극

〈당신을 초대합니다〉〈숨〉〈춤의 국가〉〈마른대지〉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숨그네〉〈보팔, Bhopal(1984~)〉 외

수상

2020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마른대지〉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 7' 〈마른대지〉

연출 노트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본 자료 중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특권 걷기 privilege walk'입니다. 대략 스무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나란히 동일선상에 섭니다. 간단한 질문을 듣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한 발 뒤로 갑니다.

“1, 2년 단위로 집을 옮겨야 한다면 한 발 뒤로”

“4대 보험을 못 받는다면 한 발 뒤로”

“근처 어떤 화장실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학력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한 발 뒤로”

질문이 쌓일수록 누군가는 저 앞에 서 있고, 누군가는 더 이상 뒤로 갈 공간도 없어, 제일 끝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비가시적인 것들을 부러 가시화하여 선을 긋고, 편을 가르는 천박함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사원증 목걸이

줄 색깔로 구분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가

다른 엘리베이터를 쓰게 하는,

그래서 단순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뿐인데

사원증을 목에 걸었을 뿐인데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작은 모욕들'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욕의 감정을 '노력하지 않은 개인'이 응당 받아야 할 형벌 정도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겪게 하는

잔인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두 가지'를 묻은 결과 '공정'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말한 공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았을 때 채용·선발·경기·평가에 관련된 상황이 상위에 몰려 있고, 복지정책과 불평등에 관련한 상황은 하위 순위에 있었습니다.

연극 〈편입생〉은 대학 편입 제도를 주요 소재로 삼고 있지만,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공정'은 선발·채용·시험에서의 공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누가 합격하고 누가 떨어질까' 하는 호기심을 극의 추동력으로 삼지 않았고, 서스펜스 (Suspense)로 극적 효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발의 기준이 공정한가' 역시 중요한 질문이긴 했지만, 이 질문이 작품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천적인 삶의 조건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이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여 결국 선천적인 삶의 조건이 대물림되는 구조.

그리고

드라마에서 재현하고 있는 인물들의 현재가 단순히 삶의 어떤 순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인물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스트로모션 (Stromotion)² 속 한 순간임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빛, 덕과 탓이 축적된 시간임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락, 이익을 가르는 상황에서의 공정.

그 너머의 이야기가 가 닿길 바랍니다.

¹ 경향신문 “10명 중 3명만 동의한 '능력주의 공정'이 다수 의견으로 둔갑[두 얼굴의 공정]” 2022.6.7, 이혜리 기자

² 비디오로 찍은 영상을 스틸 사진이나 연속 동작으로 변환시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에서 연극학부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를 졸업했다.
이화희곡번역연구회 스포큰(SPOKEN)에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아마존 리테일 리포트》, 《숲과 별이 만날 때》, 《빌리브 잇》,
《자기 결단력》 등이 있다.

두산인문극장의 올해의 주제 ‘공정’을 함축하고 있는 작품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비로소 공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공정을 다루는 여러 작품을 살펴보았지만, 교육 시스템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루시 서버의 <편입생(Transfers)>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별과 불공정은 공기처럼 존재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마치 한 가닥 남은 희망처럼 교육에서만은 깨끗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불거지는 권력자 자녀들의 대학 부정 입학 소식에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들’의 현실에 한마음으로 공분하는 것이겠지요.

<편입생>은 빈곤층에 속하는 20대 청년들의 대학 편입 과정을 통해서 교육체계에 존재하는 부조리를 직접적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읽으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후 연출진과 배우들과 작품을 놓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매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보게 되고, 늘 새로운 의문을 품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과연 악역은 누구인지, 어떤 결말이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지, 정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또 이 작품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번역 작업을 꼭 해 왔지만 희곡 번역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원문을 최대한 원저자의 의도대로 옮긴다는 점에서 출판 번역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 형식부터 다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작업이 한 차례 끝난 뒤에도 극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고, 그것이 배우의 입을 통해 발화하는 과정에서, 또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만의 고집을 일부 내려놓기도 했지요. 이러한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는 점이 무척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편입생>을 집필한 루시 서버(Lucy Thurber) 작가는 고향인 서부 매사추세츠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곳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을 써 왔습니다. <편입생>을 비롯해 오비상(Obie Awards)의 영예를 안겨준 ‘힐 타운 시리즈(The Hill Town Plays)’도 서부 매사추세츠 출신 여대생의 성장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생>에 등장하는 크리스토퍼와 클라렌스는 루시 서버가 자신이 몸담았던 브롱크스 고등학교의 연극 클럽에서 실제로 지도한 두 청년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의성이 풍부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인종, 문화권, 교육체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한국 관객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크리스토퍼와 클라렌스가 말한 대로 ‘그곳’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사람은 그곳이 어떤지, 그곳 사람만큼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과 그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균등한 기회를 얻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아니라면 공정함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연극을 통해 모두가 한번쯤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편입생, 공정한 사려깊음

천관울(alookso 에디터)

1.

클라렌스와 크리스토퍼는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 서 있다. 뉴욕의 슬럼가에서 자란 둘은 한 장학 프로그램의 추천을 받아 명문 해럴드 편입생 후보가 됐다. 클라렌스의 SAT 점수는 해럴드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놀랄 만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섬세하고, 누가 봐도 재능이 반짝거리는 글을 쓴다. 크리스토퍼는 일에 욕이 붙어 있고, 여성과 성소수자를 존중하여 말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레슬링의 천재인 데다가 수학에도 탁월하다.

그들의 고향은 “사람이 그냥 별레처럼 죽어 나가는” 동네였다. 클라렌스는 자기가 속한 패거리가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둘은 슬럼가의 삶에 젖어 들지 않으려 분투하며 살아왔다. 중산층 자녀들이 만나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랐다면 클라렌스의 SAT 점수는 더 높았을 것이고, 크리스토퍼는 선한 마음씨에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화법을 구사했을 것이다.

클라렌스는 면접관으로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는 조지아를 만난다. 둘은 책, 도서관, 문학, 글쓰기, 아름다움을 오가며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조지아는 클라렌스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크리스토퍼는 클라렌스만큼 운이 좋지는 않다. 그의 면접관 로지는 럭비 코치다. 크리스토퍼는 화를 내고 황설수설도 해 보지만, 로지는 요지부동이다. “크리스토퍼, 나는 질문을 했지 뭘 떠보려는 게 아니야.” 크리스토퍼는 답한다. “그냥 편견 없이 봐 주시면 안 돼요? 공정하게요.” “좋아.”

2.

면접이 끝났다. 면접관 조지아와 로지, 그리고 장학 프로그램 담당자인 데이비드가 모여 있다. 데이비드는 둘 다 해럴대로 보내고 싶다. 조지아는 둘 중 한 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데이비드는 우리가 더 사려 깊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애는 결핍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과잉에서 시작했구요.” 조지아는 우리가 더 공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당신은 지금 기준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구축해온 시스템을 흔들려 하고 있어요.” 조지아가 이겼다. 한 명은 탈락했다.

3.

공정은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꿀 때도,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을 만들 때도, 하다못해 장애인 문제를 다룰 때조차 공정이 핵심 잣대로 등장한다. 이 모든 장면에 조지아가 있다.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기준을 넘지 못한 노동자, 수험생, 여성, 장애인은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불공정하다. 우리는 덜 사려 깊어졌지만, 대신 더 공정해졌다. 잠깐, 정말 그런가?

공정이란 대체 무엇인가? 원래 공정이란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이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심판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내장돼 있다. 이게 공정 감각이다.

이 원칙을 두 요소로 나눠 보자. 이렇게 된다.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2)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공정의 원칙을 아주 살짝만 변형해 보자.

1)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2) 반칙과 특권이므로 용납하지 않는다.

첫눈에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채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미묘한 변형에, 우리 시대를 휩쓰는 공정 담론의 핵심이 있다. 이것은 공정의 원칙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달라서 새 이름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걸 ‘공정의 역습’이라고 부를 것이다.

공정의 원칙과 공정의 역습을 비교해 보자.

1)은 이렇다.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vs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2)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 진다.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다.’ vs ‘반칙과 특권이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 미묘한 변형으로 근본적인 개념 변화가 등장한다.

공정의 원칙에서, 반칙과 특권은 그 자체로 정의되지 않는다. 무엇이 반칙이고 특권인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할 문제다. 반면 공정의 역습에서, 반칙과 특권이란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건 다 반칙과 특권이다. 그래서 공정의 역습에서는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모든’ 시도가 불공정으로 간주된다. 공정의 원칙에 없던 개념이다.

공정의 원칙에서, 공정이란 매우 풍부한 개념이다. 무엇이 반칙과 특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려깊음, 그 토론이 일어나는 좋은 공론장, 합의를 집행하는 좋은 민주주의가 있어야 공정이 작동한다. 공정의 원칙은 경쟁의 결과에서 약자들을 더 배려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공정의 원칙은 이 배려가 반칙과 특권인지 정당한 개입인지 사려 깊게 물을 것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할 것이며, 민주적 공론장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데이비드는 조지아에게 말했다. “그 애는 결핍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과잉에서 시작했구요.”

이제 우리는 역설적인 결론에 이른다. 공정하려면, 사려 깊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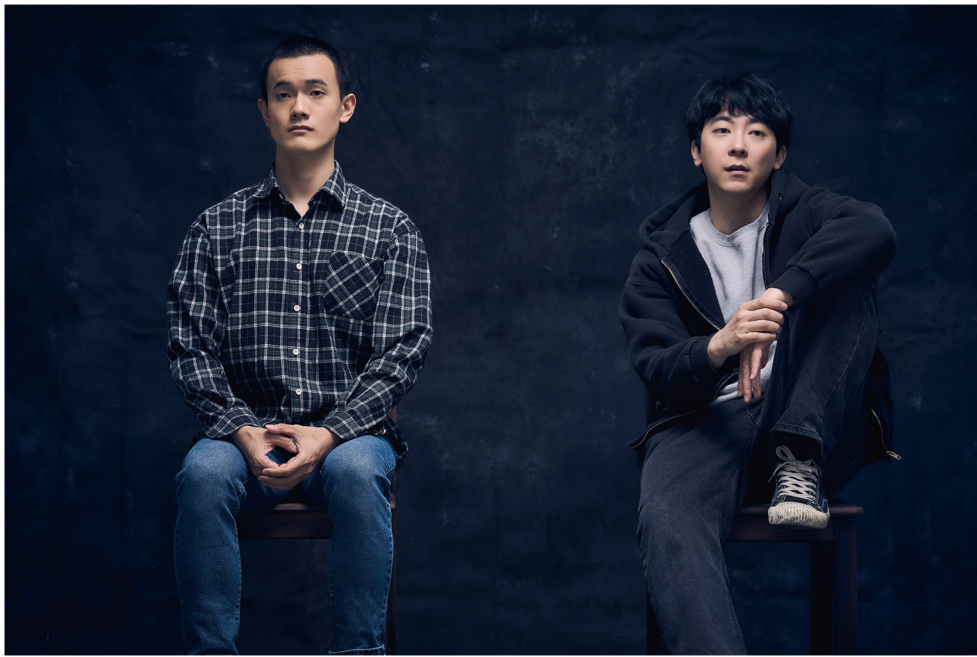
공정의 역습이란 결국, 공정의 원칙에서 사려깊음을 떼어낸 상태다. 그래서 경쟁의 결과에 개입하는 ‘모든’ 행동이 반칙과 특권으로 간주되는, 사려깊음 없는 상태. 이것이 한국 사회를 휩쓴 공정 담론의 중요한 속성이다. 공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지한 시민일수록 우리 시대의 공정 담론에 만족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면접에서 궁지에 몰린 크리스토퍼는 로지에게 외치듯이 말한다. “그냥 편견 없이 봐 주시면 안 돼요? 공정하게요.” 공정이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관된 기준의 원칙이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일이다. 공정이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구체적 사려깊음의 원칙이다.

4.

그러나 <편입생>은 보다 미묘한 문제를 무대 뒤에 숨겨줬다. 좋은 대학에 가야 삶을 바꿀 수 있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공정한가? 클라렌스와 크리스토퍼는 청소년기에 재능을 키울 기회가 없었을 뿐, 명문대가 원하는 재능을 타고 났다. 하지만 명문대가 원하는 재능이 없는 슬럼가의 다른 친구들은 어찌 되나? 클라렌스와 크리스토퍼는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 서 있다. 그게 꼭 일생일대의 기회여야만 하나? 왜 ‘다른 종류의 재능’에 ‘다른 종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도달한 관객은 이 글에서 제시한 ‘사려 깊은 공정의 원칙’만으로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관객에게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조지프 피시킨이 쓴 『병목사회』(2016, 문예출판사)를 추천한다. 연극이 끝나고도 클라렌스와 크리스토퍼의 슬럼가 친구들에게 마음이 쓰이는 관객이라면 이 책에서 더 확장된 공정의 원칙을 만날 수 있다.



시놉시스

뉴욕 빈민촌에서 함께 자랐던 클라런스와 크리스토퍼는 지역 인재로 추천되어 동부 명문대 편입을 위한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각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두 사람은 면접 전날 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

시민단체 직원 데이비드는 이들의 합격을 위해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 하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평가 대상인 클라런스와 크리스토퍼, 그들을 평가해야 하는 면접관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격의 기준'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인물 소개

데이비드 데산토스

30대-40대
중상위층 출신
비백인 남성

조지아 딘

40대-60대
중상위층 출신
비백인 여성

크리스토퍼 로드리게스

10대 후반-20대 초반
저소득층 가정 출신
히스패닉계 남성

로지 맥널티

30대
하위층 출신
백인 여성

클라런스 매튜

10대 후반-20대 초반
저소득층 가정 출신
흑인 남성

작품 이해자료

김태령(조연출)

1. 미국 대학 입시비리 사건

‘오퍼레이션 바서티 블루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지방 검찰청과 연방수사국FBI는 ‘오퍼레이션 바서티 블루스(Operation Varsity Blues)’로 명명된 사건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 기업 CEO, TV 스타, 유명 작가 등 유명인들이 연루된 최악의 대학 입시비리 사건으로 학부모 33명, 대학 코치 9명, 입시 브로커 등 총 57명이 연루되었다. UCLA, USC, 스탠포드, 예일 등 명문대 스포츠 코치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자녀를 체육 특기생으로 부정입학 시킨 사건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8년 동안 오고 간 뇌물은 2,500만 달러(약 282억)에 달했다.

대학과 학부모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해온 윌리엄 릭 싱어는 입시 컨설팅 업체 ‘엣지 컬리지&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자선기부를 가장한 뇌물을 받아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 ACT의 시험 관리자를 포섭해 대리시험을 보게 하거나 성적을 바꿔치기 하여 유명 자녀의 부정입학을 도왔다. 싱어는 시험의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녀를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학생 추천 권한이 있는 대학 코치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추천서를 작성하게 했다. 싱어는 공갈음모, 자금세탁, 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재산 몰수 및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57명을 기소했지만, 관련된 학교와 학생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브롱스(Bronx)

1948년 인종차별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흑인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흑인과 히스패닉이 뉴욕 브롱스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이주한 유색인종들은 기존에 거주하던 백인종 주민과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갱을 조직했다. 이후 1990년 뉴욕 할렘 지역 평화정책으로 인해 집을 잃은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이민자들이 브롱스로 정착하게 되며 갈등은 심화되었다. 방화, 폭동, 갱단의 총싸움이 이어지며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와 닮았었다. 이러한 백인우월주의, 폭력, 학대, 실업, 빈곤 등 절망적인 상황을 비판하는 ‘힙합’ 장르가 탄생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범죄율이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총격사건은 전 해에 비해 86% 이상 급증하는 등 강력 범죄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뉴욕 경찰국(NYPD)이 집계한 브롱스 범죄 통계율은 1주일 동안 557건(2022.6.13~6.19, 살인 2건, 강간 8건, 특수강도 101건, 폭행 157건, 일반강도 57건, 절도 164건, 불법침입 68건), 28일 동안 2,234건에 달한다.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브롱스의 인구는 히스패닉/라틴계 51.7%, 아프리카계 미국인 34%, 기타 인종 29%, 백인 22%, 아시아인 3%로 구성되어 있다. 브롱스의 빈곤율은 미국 평균에 비해 13.4%나 높은 26.3%다. 브롱스의 교육 수수료율은 미국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했을 때 미취학율은 2.5% 높고, 학사 이상의 고등교육은 13%가 낮다.

3. 미국 체육특기자 제도

미국 민간기구인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1,300개 이상의 대학 및 유관조직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관리, 운영하며 학생선수 자격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NCAA에 가입된 학교들은 스포츠 팀의 수준과 학교 규모에 따라 크게 디비전(Division)1, 2, 3으로 나뉜다. 디비전 1대학들은 규모가 크고 거의 모든 운동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동 성적도 좋은 편이다. 디비전 2, 3은 디비전 1에 비해 규모가 작고 운동 종목 역시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체육특기자는 운동 기능이 뛰어나도 학업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생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원칙을 일관되고 엄격하게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 있다. 고등학교 졸업장, 최저 16개 과목 이수, 대학수학능력 표준 점수 SAT 820점 이상 또는 ACT 68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아마추어 선수자격을 NCAA로부터 인증 받아야 체육특기자 지원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NCAA는 앞으로도 체육특기자의 학업관련 자격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학생선수를 선수가 아닌 학생으로 간주하며, 대학 스스로도 이들을 학생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4. 문학 작품

『이선 프롬(Ethan Frome)』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

이 작품의 배경인 매사추세츠 가상의 마을 스타팰드는 주인공 이선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잔인한 자연으로 묘사된다. 극 중 인물들은 “돌투성이에다 몹시 추운 긴 겨울, 황량한 아름다움을 가진 거친 땅에서 곤궁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비극적으로 살아간다.

이선은 도시에 사는 것을 꿈꾸었으나 부모와 아내의 병세로 고향 스타팰드로 돌아온 후 헛된 꿈이 되었다. 이러한 이선이 처음으로 깊은 교감을 나누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끼게 한 여성은 아내 지나의 사촌 매티다. 이선과 매티는 함께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자신이 병약한 아내를 거느린 가난한 남자이고, 자신이 떠나면 그녀는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임”을 자각하면서 모든 계획을 포기한다. 이선과 매티는 함께 떠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마지막으로 둘이 썰매를 타고 동반 자살을 약속한다. 서로를 꺼안고 썰매를 타던 중 느릅나무에 정면으로 부딪혀 충돌한 후, 매티는 지나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병을 얻게 된다.

『킨(Kindred)』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E. Butler)

20세기 최고의 SF 흑인 여성작가로 불리는 옥타비아 버틀러는 권력의 본질, 역사에 대한 통찰, 계급 및 인종 간의 문제, 성(性)의 본질과 페미니즘 등 방대한 주제를 개연성 있게 풀어내며 ‘정치적이지만 정치를 내세우지 않는 소설’로 평가받았다.

참고자료

College admissions scandal: Here is everyone charged in the case (2019.3.12, Los Angeles Times)

'미국판 스카이 캐슬' 입시비리 학부모들 유죄 판결 (2021.10.09, 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美, 유명인 연루된 역사상 최대 입시비리로 발칵...미국판 '스카이캐슬' (2019.3.13, 이투데이, 김영정 기자)

위키피디아, bronx (https://en.wikipedia.org/wiki/The_Bronx)

위키피디아, hiphop music (https://en.wikipedia.org/wiki/Hip_hop_music)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2011.12, 한태룡)

이디스 워튼의 『이선 프롬』에 나타난 고립의 비극성 (2019, 김재학)

『킨드레드』에 나타난 옥타비아 버틀러의 파타피직스 세계 (2022, 조미정)

『킨』 옥타비아 버틀러 (2016, 출판사 비제)

『나이트 워치(상)』 세르게이 루키야넨코 (2006, 출판사 황금가지)

첫 장편 소설인 『킨』은 1979년 발표되었다. 1976년의 흑인 여성 다나가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노예제도가 합법이었던 1815년 메릴랜드의 숲속에서 깨어난다. 타임슬립이라는 SF 기법을 통해 노예제도를 재고하고 인종, 젠더 문제를 사회 비평적 관심으로 끌어올렸다. 미국에서만 45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나이트 워치(Night Watch)』

-세르게이 루키야넨코(Sergei Lukyanenko)

1998년 발표된 『나이트 워치』는 총 3부작의 시리즈로, 1부 ‘나이트 워치’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러시아에서만 300만부 판매되었다. 2003년 동명의 영화로 리메이크되어 당시 <반지의 제왕>, <스파이더맨2>를 누르고 러시아 영화로는 드문 성공을 이룬 작품 중 하나다.

현대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세계를 위해 일하는 빛의 마법사와 이기적인 동기를 쫓는 어둠의 마법사는 갈등을 빚어 왔지만 공멸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감시하게 된다. 빛의 마법사인 나이트 워치는 어둠을 감시하며 규칙을 위반한 자들을 처단한다. 어둠의 마법사인 데이 워치는 지나친 선형으로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감시한다. 두 경비대가 각자의 몫을 다하는 동안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룬다. 이에 걸보기엔 평범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타인의 정신을 조작하고 이차원을 넘나드는 ‘다른 존재’는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빛과 어둠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공상아

연극

〈비타민P〉〈강신일과 흔들거리며〉〈양덕원 이야기〉〈불신의 힘〉〈날 보러와요〉
〈원파인데이〉〈아버지와 아들〉〈여기가 집이다〉〈바람난 삼대〉〈B연소〉 외

드라마

〈그리드〉〈원더우먼〉〈머니게임〉〈스토브리그〉

영화

〈폭로〉〈검객〉



김하람

연극

〈인간이든 신이든〉〈태양〉〈손님들〉〈강아지똥〉〈꿈배양〉 외



이지현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게 마지막이야〉〈막다른 곳의 궁전〉
〈로풍찬 유랑극장〉〈킬미나우〉〈과학하는마음 - 숲의심연 편〉〈달나라 연속극〉 외

드라마

〈더 패키지〉〈아름다운 세상〉〈안녕 드라쿨라〉〈서른, 아홉〉〈그린마더스 클럽〉 외

수상

2017 제13회 하얀수건상
2012 제33회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그리고 또 하루〉
2009 제46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시동라사〉



조의진

연극

〈머핀과 치와와〉〈불가사리의 자살〉〈당신을 초대합니다〉
〈춤의 국가〉〈마른대지〉 외



최호영

연극

〈오이디푸스 온 더 튜브〉〈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카르타고〉〈소년 대로〉

〈우주에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





접근성 노트 - 터치투어(Touch Tour)를 중심으로

서수연(음성해설 작가·연구자)

공연의 접근성과 <편입생>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예술인지원법'으로 인해 다양한 시도가 공연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공연이 그중 하나다(복지타임즈 2020. 12. 10). 배리어 프리 공연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해설(audio description)을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Subtitles for the Deaf or Hard-of-Hearing: SDH)과 수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매체 접근성(Media Accessibility)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2년 7월 5일부터 23일까지 두산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편입생>은 시각장애인 관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음성해설의 보조장치인 터치투어(Touch Tour)와 음성소개(Audio Introduction)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관객에게는 전 회차 문자통역을 제공한다. 필자는 이번 공연의 배리어 프리 내용 중 터치투어를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터치투어는 시각장애인 관객들을 공연 2시간, 혹은 1시간 30분 전에 미리 극장으로 초대하여 약 30분 동안 진행한다. 시각장애인들은 무대를 직접 걸어보며 그 규모를 파악하고 의상이나 소품 등을 만져보며 크기와 모양을 확인하고 질감을 느껴볼 수 있다. 공연 연출가나 배우들과 대화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무대의 공간감, 소품의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연출가의 예술적 관점도 이해할 수 있다(아브라йти엔 외 2명(Abraitiën et al.) 2016: 236).

<편입생> 터치투어 제작기

<편입생>은 명문대 면접준비라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고 주로 대화로 플롯을 전개하는 작품이다. 때문에 터치투어를 통해 면접준비 공간과 주요 소품을 소개하고, 음성소개로 등장인물과 소품 등을 설명한다면 (음성해설이 본 공연에 제공되지 않아도) 시각장애인 관객들이 극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불편이 없으리라 판단했다. 필자는 연출가, 접근성 매니저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터치투어를 위한 현장 동선을 확인하고, 무대 구성과 주요한 소품을 선택한 후 터치투어 진행 대본을 작성하였다. 터치투어는 시청각 정보를 감각체험을 통해 전달하고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게 하는 기본 기능,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회 제공 기능을 포함해 시각장애인 관객들의 안전까지 생각해야 하는 확장된 문화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본 공연에서 접근성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터치투어'가 시각장애인 관객들에게 극의 이해를 돕는 정보 도우미로서뿐만 아니라 새롭고 즐거운 문화체험으로 남길 바란다.

참고문헌

복지타임즈 (2020. 12. 10) 「장애예술인지원법, 오늘부터 시행...예술지원 예산 247억원」,
Abraitiën, Lina, Jurgita Astrauskienė, and Miglė Urbonienė (2016).
Translation as a means of social integration, Acta humanitarica universitatis Saulensis, 23, 232-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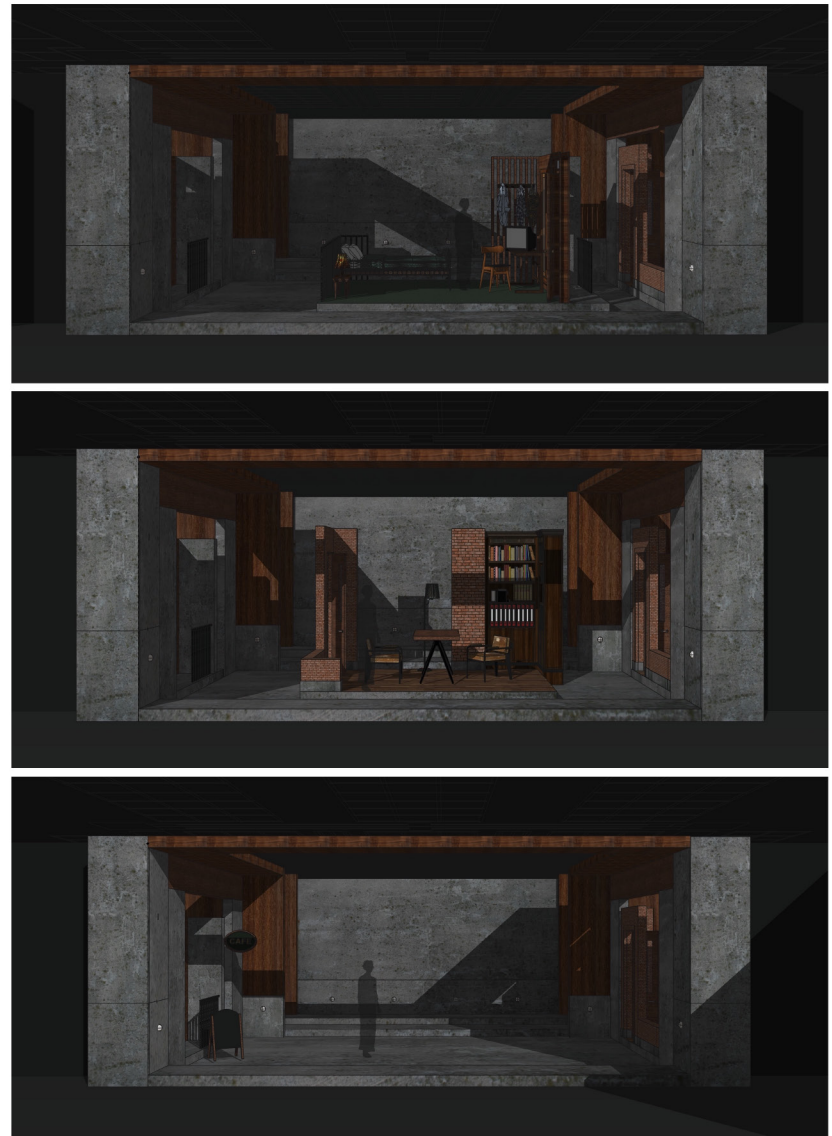
서수연

국내 제1호 음성해설(화면해설) 작가
영국 시티대학교 영상번역 대학원 (음성해설)
영국 뉴캐슬대학교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석사 (음성해설(화면해설)과 이용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번역학과 박사과정 (음성해설 기반 논문)

무대디자인

송지인

무대는 브롱스와 헤럴 대학 사이
어느 길 위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명디자인

성미림

〈편입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힘겹게 하나씩 헤쳐가고 있는 현실에 던져진 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현실과 환경은 모두 다르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은 모두 똑같은 잣대로 그들을 평가합니다.

단단한 벽과 막힌 천장의 이미지들이 그들이 느끼는 절망, 한계 그리고 환경으로 표현되어 그려집니다. 순간순간 느끼는 그 거대함과 단단함 앞에서 그들은 좌절을 하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시 싸우기 위한 다짐을 할 것입니다.

클라렌스가 면접을 위해 교정을 거닐고, 자기에겐 꼭 맞는 곳이라 느끼는 순간의 행복감은 햇살로 표현되어 면접을 보는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클라렌스의 것이 아니었듯 그 햇살이 그를 직접 비추지는 못합니다. 밝은 햇살 속에서 책을 읽고 교정을 다니는 클라렌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음악

박소연

〈편입생〉의 음악은
각각 다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브롱스 거리, 조지아의 서재, 로지의 필드 등
그곳에서 각자가 보낸 서로 다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기 다른 시간들로 다져진 가치가 이야기하는 공정을 바라봅니다.

의상디자인

김미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되는 고정관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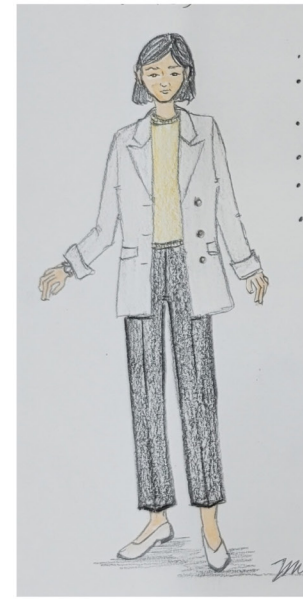
인종, 성적 지향성, 성격, 태도...

의상을 통해 느껴지는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 데산토스



로지 맥널티



조지아 딘



크리스토퍼 로드리게스



클라런스 매튜

작 루시 서버(Lucy Thurber)
연출 윤혜숙
번역 한원희
출연 공상아 김하람 이지현 조의진 최호영
조연출 김태령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묵수

무대디자이너 송지인
무대제작 와스테이지(대표 조환준)
제작팀장 남기상
제작팀 이승용 정병문 정재현 차승호
작화팀장 이남련
작화팀 작화공간(이남련 박지원 조정숙)
전식 제이컴(대표 전혁)
제작협력 에스테이지 작화공간 제이컴
무대전환 방찬욱 배태욱

조명디자이너 성미림
조명팀장 정하영
조명크루 권오성 윤혜린 이상혁 정우원 정주연 최인수
조명오퍼레이터 정우원

음악 박소연

음향디자이너 임서진

영상디자이너 강수연
영상기술감독·장비대여 김현배 위정욱

음향·영상오퍼레이터 이아림

의상디자이너 김미나

분장·소품디자이너 장경숙
소품디자인 어시스턴트 박진경 임민정

배리어 프리 제작

접근성매니저 김태령
문자통역 자막 제작·오퍼레이터 이청
터치투어 제작·진행 (주)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센터(서수연 구태훈 서수정)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베르크
사진기록 서울사진관
영상기록 헤즈스튜디오
인쇄 청산인쇄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후원 두산

두산아트센터

예술감독 강석란
기획매니저 박찬종 정다운
프로듀서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홍보마케팅매니저 강소라 강소정 윤빛나리 이수진
티켓매니저 이한별 최시윤
기술감독 김관수
조명감독 황동철 왕은지
음향감독 신승욱 류호성
무대감독 강현후 민지홍
하우스매니저 권지은 김현희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최희승 장혜정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박소연

*연극 <편입생>은 2016년 뉴욕 스테이지 앤 필름(New York Stage and Film)과 바사 대학교(Vassar College)가 협업하여 파워하우스 씨어터(Powerhouse Theatre) 여름 시즌용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뉴욕의 라크 연극개발센터(Lark Play Development Center)에서 개발 과정을 거쳐 2018년 4월 23일 뉴욕 MCC 씨어터(MCC Theatre)에서 초연했다. (예술감독: 로버트 루폰, 버나드 텔시, 윌리엄 캔틀러 총괄감독: 블레이크 웨스트)

2023 두산아트랩 공모 안내

두산아트랩은
공연·미술 분야의
잠재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연

접수기간

2022년 6월 13일(월) - 7월 13일(수)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900만 원)
- 발표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 장르 제한 없음
-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공연기간

2023년 1-3월

선정인원

- 8명 내외
- * 개인만 신청 가능
 - * 예술단체인 경우 대표 창작자 이름으로 신청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전시

접수기간

2022년 7월 18일(월) - 8월 1일(월)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두산아트랩 공모선정자 전시참가
(제작지원비: 1명(팀)당 300만 원)

대상

- 만 35세 이하
- 한국 국적
- 개인전 1회 이상

전시기간

2023년 1-2월(선정작가 그룹전)

선정인원

5명(팀)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포트폴리오

두산아트센터 2022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리지 뮤지컬 3.24-6.12
 베어 더 뮤지컬 뮤지컬 6.22-9.18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10.1-11.20
 광부화가들 연극 12.1-2023.1.22



두산아트랩 전시 2022 1.12-2.19
 김세은 개인전 3.2-4.2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4.20-5.25
 kdk 개인전 6.15-7.20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8.3-8.31
 업체eobchae 개인전 9.21-10.19
 두산갤러리 기획전 11.16-12.17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강연 4.4-5.30
 두산아트스쿨: 미술 4.21-5.26, 10.13-11.10
 두산아트스쿨: 공연 7.29-8.19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6.24-12.2

공모 프로그램

공연
 DAC Artist 1.5-1.25
 공동기획 5.9-6.8
 두산아트랩 공연 6.13-7.13

미술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1.3-1.13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3.15
 두산아트랩 전시 7.18-8.1



두산아트랩 공연 2022
 어느 별 좋은 날 음악극 1.27-1.29
 작 박예슬 작곡 조한나 작창 안이호
 낙지가 온다 연극 2.10-2.12
 작 김도영 연출 민새롬
 (겨)털 연극 2.17-2.19
 작/연출 김유리
 공의 기원 연극 2.24-2.26
 각색/연출 김유림
 GV 빌런 고태경 연극 3.3-3.5
 각색/연출 이은비 대본구성/창작협력 김소정
 유디트의 팔뚝 연극 3.10-3.12
 작/연출 안정민 가아금작창 김민정
 한남 제3구역 연극 3.17-3.19
 작 원아영 연출 남선희
 일본위 고독인 연극 3.24-3.26
 작/연출 연지아

두산인문극장 2022: 공정

당선자 없음 연극 5.17-5.29
 작/드라마터그 이양구 연출 이연주
 웰킨 연극 6.7-6.25
 작 루시 커쿠우드 연출 진해정
 편입생 연극 7.5-7.23
 작 루시 서버 연출 윤혜숙

공동기획

죽음의 집 연극 4.9-4.24
 작 윤영선 윤성호 연출 윤성호
 오버더페창: 문전본풀이 판소리 8.6-8.20
 작창/각색/연출 박인혜

DAC Artist

추다혜 신작 음악 9.27-10.15
 구성/연출/출연 추다혜
 클래스 연극 10.25-11.12
 작 진주 연출 이인수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윤혜숙 신작 연극 11.29-12.17
 연출 윤혜숙

kdk

g

2022.6.15.-

7.20.

DOOSAN Gallery

